

‘20대 국회’ 호남 중진에 듣는다 정동영 (국민의당·전북 전주병)

“더민주는 형제당 정권교체 협력”

국민의당 정동영 당선인(전북 전주시 병)은 스타 방송기자 출신의 정치인으로 집권당의 대선후보까지 지냈다. 그런 그가 부침을 거듭하다가 20대 총선에서 또 다시 당선되며 4선 의원이 됐다.



호남정치 복원 방향은

패배주의 극복·중심성 회복

DJP방식연합·후보단일화

‘야권연대’ 국민 뜻 따라야

란 대안이 있었다는 것이다.

-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

▲현 시대의 화두는 ‘불평등 해소’다. 사회 곳곳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불평등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호남과 영남 등 온갖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 불평등 해소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이자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불평등 해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다. ‘공정임금법’ ‘반값 아파트법’ 제정을 주도하겠다.

- 3당 체제가 만들어졌다. 바람직한 국민의당의 역할은.

▲국민의당 지역구 국회의원 25명 중 23명의 지역구가 호남이다. 호남은 지역이며 역사이고 정신이다. 지난 100년 한반도의 역사를 여기까지 밀고 온 정신이다. 인간의 존엄, 평화, 복지국가의 열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고귀한 정신이 호남정신이다. 이런 호남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이 과제다.

- 국민의당과 더민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한다고 보나.

▲더민주당은 형제당이다. 정책을 공조하고, 박근혜 독재를 거부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도록 야당에 준 힘을 사용하겠다. 손을 잡고 정권교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 그런 의미에서 야권연대 얘기가 나오는데.

▲정권교체를 위한 협력 경로는 DJP 방식의 연합, 후보단일화, 통합정당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2017년에 국민의 뜻에 따라 가면 될 것이다.

-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그동안 당을 이끌어온 데 대한 평가는.

▲총선 과정에서 야권연대 얘기가 나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보여줬다. 대단한 지도력을 보여준 것이다.

- 정 당선인은 진보적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안 대표와 이념 또는 정책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당 강령에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양날개로 민생정치를 구현한다고 나와있다. 나는 합리적 진보다. 안 대표는 개혁적 중도라고 생각할 것이다. 문제는 이념의 지향성이 아니고 문제 해결 능력이다. 고단한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20대 국회에서 보여줘야 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양날개를 조합해서 잘 써야 한다.

- 4선이 됐는데 향후 정치적 꿈은.

▲정권교체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라면 문지기를 해도 좋다.

- 직접 대선에 출마하는가.

▲정권교체 없이는 지역발전에도 한계가 있다. 정권교체가 지역 차별을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 낙후지역발전을 해낸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문지기가 되든 좋든 좋다. 내가 뭐가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 ‘호남정치 복원’이란 화두가 있다. 바람직한 호남정치의 방향은.

▲호남 중심성의 회복과 호남 패배주의 극복이다. 이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의미다. 이를 통해 호남을 중심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다.

- 전당대회를 연말로 연기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현재 국민의 관심사는 제3당인 국민의당이 정치를 어떻게 바꾸고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있다. 국민은 누가 당권·대권을 갖느냐에 관심이 없다. 이것에 대해 동의를 만들어낸 것이다.

〈끝〉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 세계 365번째 ‘국제안전도시’ 됐다

국내 도시론 11번째 ... 국제행사·관광객 유치 도움

세계 365번째 국제안전도시 지위에 오른 광주시가 공인을 자축하고 대외에 알렸다.

광주시는 28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식을 열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로부터 공인패를 건네받고 안전증진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행사는 유공자 표창, 윤장현 광주시장 등의 환영사, 국제안전도시 소개·협정내용 설명, 협정서 서명, 공인패 전달, 축하

공연 등 순으로 진행됐다. 국제안전도시는 안전증진을 위한 협력 기반, 고위험 연령·환경·계층의 안전증진 프로그램 등 7개 기준을 충족했을 때 공인된다.

시는 2013년 2월 공인요청서를 제출해 안전증진 사업 수행, 실사 등을 거쳐 지난 해 말 승인을 통보받았다.

시 관계자는 “안전도시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안전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뜻한다”며 “안전도시 브랜드를 얻은 만큼 해외 기업, 국제행사,

관광객 유치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인도시 세계 33개국 364곳으로 국내에는 제주, 부산, 서울 송파구 등 모두 10개 도시가 포함됐다. 광주는 국내 11번째, 세계 365번째다.

이날 오후에는 국내 지원센터인 아주대 지역사회 안전증진연구소 주관으로 국제안전도시 심포지엄도 열렸다.

광주전남연구원 김광욱 책임연구위원이 광주 안전도시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대일 핸슨(호주), 요코 시라이시(일본) 등이 국제 사례를 발표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제안전도시 공인식 광주시와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안전도시 공인식에서 휘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양당체제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등장한다

유정심 의원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

사실상 일당독점이었던 광주시의회에 양당체제가 갖춰지면서 교섭단체도 등장하게 됐다.

광주시의회 유정심 의원은 지난 27일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발언 등 관련 내용을 담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 등이 정당이나 교섭단체를 대표해 30분까지 연설, 기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첫번째 임시회와 정례회에서 1번씩 하되 전·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를 하는 경우 추가로 1번씩 할 수 있다.

양당체제가 구축되면서 교섭단체 대표 발언 등이 필요해져 국회법을 준용해 조

례개정을 제안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더민주와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각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을 선출하는 등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일색이었던 시의회 의원들은 총선을 전후해 더민주 13명, 국민의당 8명으로 당적이 재편됐다.

이에 따라 하반기 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 배정 등 원구성 과정에서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시의회에서는 4대(2002~2006년) 당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한 뒤 처음으로 양당구도가 형성됐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인권도시 행정실천

광주시, 45건 확정

‘인권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가 인권을 기반으로 둔 행정실천의 고삐를 죄기로 했다. 광주시는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주재로 실·국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행정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윤 시장은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고 보살피면서 나눔과 배려의 광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실천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분야별 토론회에서 확정된 과제를 공유하고 실천방안을 점검했다. 시는 학교 밖 청소년, 자살, 비정규직, 이주민, 교통약자, 빈곤 등 6개 분야 61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분과별 토론회 끝에 법·제도상 한계로 추진이 어려운 14건,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2건을 빼고 45건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한보청기 www.maxo.co.kr

또는 보청기를 처음, 다시 하려면...!

- 매우 중요한 사실 -

일반적으로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로서 소리를 크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성(노화성) 신경성 난청은 다릅니다. 소리가 크게 해주면 청각 인식범위가 좁아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웅웅거립니다. 이는 청각 신경세포가 퇴화되어 보충현상(Recruitment)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청기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보청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소리를 크게 하되, 말소리(어음)와 여러가지 소리를 잘 인식·식별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적 기능이 없으면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한 것이 '맥소' 보청기의 기술·기능입니다. 대한보청기는 '맥소' 보청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난청과 보청기는 소리의 인식과 식별의 기술이 핵심이므로 대한보청기는 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격부담이 적어야 하므로 맥소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맥소 '1,2,3' 맥소 '애비오' 맥소 '스코프' 맥소 '크리스프' 등은 그러한 상위기능의 제품군으로 소개됩니다. 대한보청기의 본사 직영센터는 보청기의 상위핵심 기술로서 소리의 식별·인식의 기술 및 기능을 매우 중시하며, 누구나 잘 들을 수 있도록 맥소를 시험관장해 드리므로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보청기 본사 직영센터의 특징점 - 직영가·18개월 무이자 할부·렌탈·편리한 직영 시스템



책자 무료발송

보청기의 종류·가격·시험테스트 상담·검사·구입·무이자할부 등 안내

광주·전남 062)430-8900
순천·여수 061)741-4880
전북·전주 063)251-4999

365일 전국, 천사 무료 방문 서비스!

1599-9040

◆경안본사 02)2248-5600 ◆충북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전동구본점 042)634-2080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부산중구본점 051)632-6200 ◆울산본점 052)256-9050 ◆충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